



## Wake Up

Wake Up 깨어나라는 에베소서 5장 14절로 세워진 제자 교회 Eternal Joy JEJA Church의 비전 구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비전선언문을 매 주 예배 마지막에 함께 외칩니다. 그렇게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날 한 형제가 종이 한장을 가져왔습니다. 보니까, Wake up 이라고 써져있는 찬양악보였습니다. 자신의 비전으로 삼은 한 캄보디아 청년 Oudom 스스로 곡조를 넣어 노래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형제는 공대 전기과 4학년입니다) 이 찬양을 들은 또다른 형제 Henglong가 울동을 만들어 4명의 지체 Sereyrath, Pisey, Chhay와 함께 이번 크리스마스 예배때 워십댄스를 했습니다. 솔직히 선교사의 눈에는 그리 세련된 동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보정하지 않은 깨끗한 아름다움과 같은 순수하고 맑은 찬양은 그래서 고칠 것이 없다 여겨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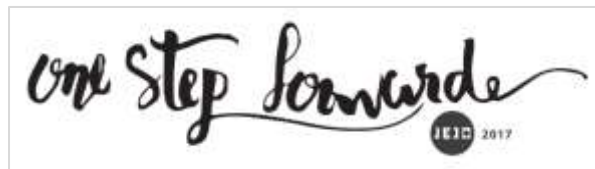
하나님의 비전이 한 형제에게 전해지고, 그를 통해 교회로 흘러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영혼들을 깨우시고, 그들을 통해 또다른 영혼들이 깨어나며, 결국 셀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일어나기를 저희는 바라고, 그리 일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 앞 청바지 입은 뺨싸이는 동역사신 no.20에서 나뉘드렸던 사원 앞에서 멈춰섰던 자매입니다.

## 한걸음 앞으로 One Step Forward

한 해를 돌아보고 새 해를 바라보며 제자교회와 저희 사역의 2017년 표어를 '한걸음 앞으로'로 정하였습니다. 2016년의 새로운 챕터 a new chapter에 이어,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자는 취지입니다. 캄보디아 청년들은 세계 어느 나라의 동시대 청년들과 같은 고민과 기로에서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문화적, 환경적 차이에서 오는 안타까운 연약한 면들을 구호단체들, NGO 들은 돕습니다. 하지만, 한 한 세대를 일으키는 것은, 운명을 바꾸는 것은, 그들이 받는 도움에서가 아닌, 믿음으로 내딛는 한 걸음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선교사인 저희가 먼저 한걸음 나아가야 할 것이고, 섬기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한걸음 더 나아가게 하고 싶습니다. 이 새해 비전을 두고 디자인을 전공하는 자매 Mut Diane에게 한 달의 시간을 주어, 손으로 비전을 쓰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거친 듯, 힘있게 한걸음 내딛는 것 같은 글씨, one step forward, 가 쓰여졌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한 마음으로 영혼을 변화 시키는 것은, 나아가 한 나라의 미래와

- Handwriting Typography by Mut Diane

## J shop & café

2017 교회 표어를 넣은 '원 스텝 포워드 One Step Forward 티셔츠'를 만들어, 이번 크리스마스때 J shop & café 1 일 부스 1 day shop 를 차려 판매했습니다. 수익금 전액을 곧 있을 1 월 6-7 일의 감병잠 단기선교때 고아원에 기증하는 쌀 기금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50 장을 제작해 반정도 판매를 1 차 목표로 잡았는데, 나중에 물어보니 가장 큰 사이즈(커서 못입는) 몇 장을 제외하고 다 팔렸으며, 중간 사이즈는 주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완판이었습니다. 돈 번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왜 모두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 한 페이지 복음 1 page Gospel

이번 예배의 주보는 훈련의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앞면은 찬양 가사를 포함한 주보고, 뒷면은 1 page Gospel (한페이지복음)을 넣었습니다. 4 영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나, 특별히 기도하고 한 형제에게 1 주일의 시간을 주어 만들도록 했습니다. 복음을 한 장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훈련이고 유익한지를 알려주고 coaching 싶어서였습니다. 그리고 완성도가 있는 전도지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 캄보디아국립기술대학 첫 졸업식 NPIC's first graduation ceremony

저희가 섬기는 캄보디아국립대학 National Polytechnic Institute of Cambodia 은 2005 년 개교 후 지난 10 년간 수천명의 학생이 이곳을 통해 사회로 배출되었으나, 정작 졸업식은 한번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의



국립대학의 경우 졸업생의 수가 차면, 총리나 고위관료를 초대해 한번에 졸업식을 치루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개교 10 년된 국립대학인 NPIC 는 드디어 지난 12 월 6 일, 3000 여명의 졸업생이 한자리에 모여 첫 졸업식을 하였습니다.

이곳에서 가르치는 선교사인 저희에게도 참으로 뜻깊은 순간이었습니다. 2010 년 이곳에 첫 발을 내 디딘 후, 기도 가운데 첫 학생을 만나, 양육이 시작되고, 이후 모임이 생겨나고, 예배공동체로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 되었던 지체들, 찌보완, 삐싸이, 헤잉, 로앗 등이 졸업식을 하였게 때문입니다.

처음 캄보디아에 올 때는, 저희가 이 나라의 축복이라 여겼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성장한 이들이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이요 축복임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 쓰러이뷔 Sreyvy

쓰러이뷔는 이번에 졸업한 학생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는 학생입니다. 작년 한 해동안 가르치며 만난 학생중에 가장 뛰어난 짬타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자라 일찍 결혼하여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늦게 대학을 들어와 열심히 성실히 공부하며 성적도 우수하며, 또 남편은 국립소아병원의 의사인, 저희 부부가 제자 삼기를 바라고 기대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 월 학기를 마칠 무렵, 짬타에게 성경공부를 제안했고, 10 월부터 마침내 집으로 오기 시작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인재와 가정을 만나게 하셨다 생각하고 감사드렸습니다. 그런데, 3 주 정도가 지나면서, 이 자매는 직장을 구했고 더 이상 성경공부에 올 수 없다 하며, 같이 졸업했던 한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자매가 쓰러이뷔입니다. 사실, 쓰러이뷔는 1 년동안 정지웅선교사 수업에서 가장 수업태도가 게으르고, 학업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 한두번 오다가 그만두겠지 여기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쓰러이뷔가 한번을 오더니, 그 다음주에도, 또 다음주에도, 한번도 빠지지 않고 성실히 말씀을 배우러 찾아옵니다. 선교사로서 하나님께 부끄러운 마음을 회개하였고, 이 자매가 특별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쓰러이뷔가 정은영 선교사와의 원투원 성경공부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말씀을 잘 배우고 양육받아, 이후 많은 이를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이로 삼으시길 바라봅니다.



또 한 명의 형제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동역서신 no.25 에서 태국선교의 '진가 true value '로 소개해드렸던, 피터 Peter 입니다. 그후 한 달 쯤 지난 어느 주일 오후, 진지하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교제하는 여자친구와 그의 가족의 종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6 년을 교제해 왔으며, 2-3 년 후 결혼을 생각하는 중이라 했습니다. 문제는 철저한 불교 신자인 여자친구의 부모가 결혼을 생각한다면 집안의 모든 의식과 행사에 가족의 일원으로 따라달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교회에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며 사실상 통보를 해 왔습니다.

피터는 그날이후 지금까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도 닿지 않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 형제로 인해, 한 동안 가슴이 먹먹하고 몇날을 자지도 못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있는가'의 질문마저 오히려 저희를 낙담시켰고, 동시에 저희가 다 느끼지 못하는 피터가 짊어지고 있을 중압감을 생각하면 마음이 안타깝고 측은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믿습니다. 그 이름처럼, '돌이켜 다른 이를 세우는' 피터를 바라봅니다. 위해 기도해주세요.

### 선교사 가족

솔직히 저희 이야기는 별로 쓸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 부부가 나누는 대화와 기도 대부분은 섬기는 교회와 대학, 자녀에게 있습니다. 정지웅 선교사는 최근 요로결석으로 2 주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정은영 선교사는 컨디션이 계속 회복되고 있습니다. 온유와 주언이는 키가 더 컸고, 온유는 어느덧 사춘기에 가까워졌는지 부모에게 안기길 어색해 합니다. 온유의 아토피, 주언이의 알러지가 가라앉아 아이들이 조금 더 편히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캄보디아에서 지내며, 성령님의 은혜 favor 안에 부족함없이 총명하고 깨끗한 아이들로 자라주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017 년 1 월 6-7 일, 감뽕짬 성광고아원으로 단기선교 떠납니다. 올해로 6 년째 입니다. 선교사는 고리가 될 뿐, 캄보디아 청년들과 어린이들이 서로 믿음 안에서 연합하고 즐겁게 서로의 삶의 터치 touching 을 주고 받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이 서신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새 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고아원에 기증한 쌀 기금에 동참하실 분은 알려주세요. 저희의 매년 목표는 500kg 이상 입니다.

#### 기도제목:

1. 영혼을 더욱 사랑하고 맡겨주신 교회와 대학을 잘 섬기며, 새해의 비전을 잘 분별하고 나누도록
2. 세명의 리더(우덤, 다엔, 행룡)의 성장과, 쓰러이뷔 양육, 피터를 믿음회복 위하여
3. 감뽕짬 선교 (1 월 6-7 일)에 은혜와 안전, 채우심이 있기를
4. 가족의 건강과 아이들의 학비 후원자를 위하여

2016 년 12 월 28 일  
정지웅/은영, 온유, 주언 올림



~ Episode ~

크리스마스 주일,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모든 순서를 마치고 집에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흥분하고 행복한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마무리하는 청년들에게 잘 가라고 인사를 하는데, 대뜸 '2차 안가세요?' 라고 되묻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었는데, 몸이 따라 주지 않았습니다..



- The End -